

건강관리 한 곳에서... 광주시 통합건강센터 운영

NEWS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21개 병원-119 연계 환자이송 응급실 뺑뺑이 예방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환자 심야 의료 공백 해소

광주지역 5개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가 지치구별로 설치, 운영된다.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골자로 한 '공공의료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 보건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건강센터'를 지치구별로 3~4개소 설치, 운영기로 했다.

통합건강센터에 시민들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종합 평가해주는 '건강매니저'를 배치해 '1대1 맞춤형 건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동구와 서구에 각 3곳씩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체계 개편을 통해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1인 가구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택 의료센터 등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

이 시스템은 광주에 있는 21개 응급병원과 119 구급대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재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응급실이 얼마나 붐비는지, 환자이송 중 위치 등 핵심 정보들을 즉시 확인해 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되도록 돕는다.

응급의료기관 환자 전원 기능을 통해 처음 방문한 응급실에서 치료 중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졌을 때 상황에 맞는 중증도별 응급실로 빠르게 옮겨질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환자 이송 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 이송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의료

진간 소통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응급실 간 신속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늦은밤 아픈아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도 늘린다.

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남구)을, 지난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광주센트럴병원'(광산구)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아이맘 아동병원'과 '미래아동병원'(북구)을 지정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이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 중 월·화·수요일은 아이맘아동

병원이, 목·금요일은 북구미래아동병원이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토·일·공휴일은 두 병원 모두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병원 인근에 다니은누리약국과 아이사랑약국이 협력약국으로 지정돼 야간·휴일에도 쉽게 약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응급실 진료비는 5~10만원인데 비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는 1~2만원으로, 병원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통합건강센터 신설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든든한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수 스카이다이빙 재개장 미디어 아트 공간 등 신설

여수관광항공사에는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스카이다이빙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최근 재개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카이다이빙은 지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시멘트 사일로를 전망대로 개조한 건축물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모티브로 한 파이프오르간, 해수담수화 설비,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예술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박람회 폐막 이후 시설 노후화와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로 운영이 축소되면서 재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스카이다이빙은 첨단 미디어아트 공간 신설, 워터커튼 설치, 전망대 정비,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을 완료했으며, 관람 편의성 강화 및 볼거리 확대를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타워 1층에는 '미디어아트 관람실'이 새롭게 조성돼 여수의 자연을 소재로 한 영취산 진달래, 진남관, 오동도 등의 모습을 빛과 소리로 표현했다.

또 과거에 설치된 담수화 설비의 의미와 상징성을 계승하기 위해 '워터커튼'이 설치됐다. 20층 전망대는 밝은 화이트 톤과 우두 소재를 활용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으로 밝고 희망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광양=김재진 기자 kjjin@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서울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도·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지원 요청

이학영 부의장에게 AI 슈퍼클러스터 국가차원 지원 등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AI 슈퍼클러스터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3일 나주에서 업무협약을 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과 관련해 호남권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대역선 등 경제동맹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핵심과제 지원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력계통 확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것을 건의했다.

지난 25일 김영록 지사는 호남권 경제동맹 일원으로 서울역에서 개최한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광주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전국 1위 목표 순항

전남도가 올해 최초로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설정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전국 1위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의 신규 인증신청 면적이 전국 5888ha의 80%에 해당하는 4714ha에 이른다. 이는 올해 전남도가 전국 1위를 목표로 정한 저탄소 인증면적 6160ha(기준 1660·신규 4500)의 103%에 달하

는 수준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1~2월 3차례 실시한 교육에 무려 69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전국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 순회 설명회,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신청 유도, 전국 유일 전남도에 한해 2회 교육 추가 실시 등의 노력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영암군-KMG,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맞선

운영 방향·과제 등 논의 상설협의체 구성 첫 회의

전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 ㈜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과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 방향과 협업과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이 지난 13년간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뤄지다가, 2025년부터 5년간 전문 민간기업인 KMG에 위탁된데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 셈이다.

특히 이번 민간위탁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을 넘어, 모터스포츠 중심의 공간에서 일상적인 체험·관광·교육이 결합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도약을 예고하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영암군-KMG와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5대 핵심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실행 과제로 경주장을 가족형 체



험 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모터스포츠 대회와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동물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모터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여 기반 유소년 교육, 국내 대회 실전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영암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국내 선수의 세계 진출 사례를 창출하며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중 서킷 유류 시간을 활용한 기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치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주·별첨리(영암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